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 잘 나가네...2월 ICT 수출 11% ↑

역대 2월 수출액 중 2위 기록...최근 9개월 연속 증가세 유지

반도체 수출 8개월 연속 늘어...對중국·미국·EU 호조 이어져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주요 품목 호조에 힘입어 역대 2월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ICT 수출액은 152억8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5% 늘었다.

이는 2018년(156억8000만 달러)에 이어 역대 2월 수출액 가운데 2위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하루 평균 수출액은 7억 8000만 달러로 28.7% 늘었다.

수입액은 19.3% 확대된 91억9000만 달러이며 무역수지는 60억9000만 달러로 흑자를 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는 전년 대비 12.5% 늘어난 84억4000만 달러어치를 수출하면서 8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각각 12.6%, 13.2% 늘어난 52억 2000만 달러, 27억 달러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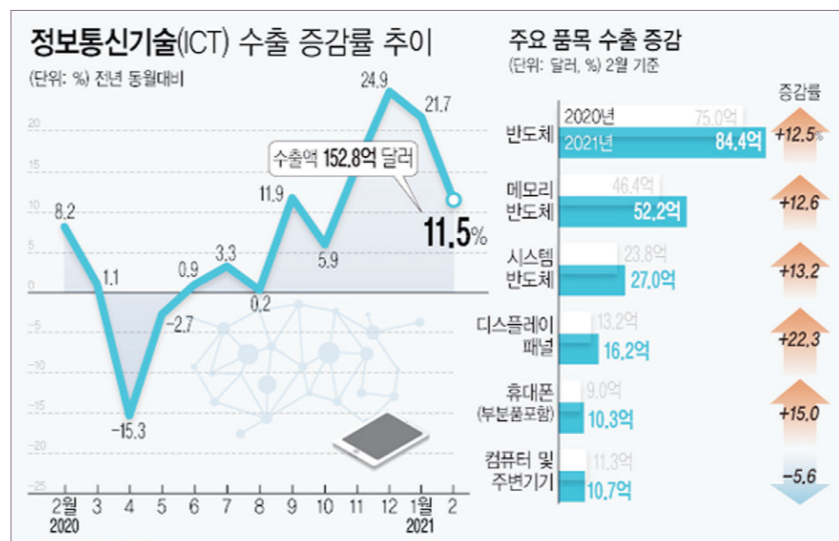
디스플레이 수출액은 16억2000만 달러로 22.3% 증가했다. 액정표시장치(LCD) 단가 상승과 모바일 수요 확대에 따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요 확대 등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휴대폰 수출액은 10억3000만 달러로 15.0% 늘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 증가 등으로 완제품(4억3000만 달러, 5.2%)과 부품품(6억 달러, 4.6%) 모두 수출 강세를 보였다.

반면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액은 5.6% 감소한 10억7000만 달러다.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등 주변기기 수출이 8.5% 줄어든 9억2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부진했다.

지역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70억2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6% 증



가했다.

최근 6개월 연속 증가세로 반도체(49억5000만 달러, 10.9%), 디스플레이(7억7000만 달러, 30.3%), 휴대폰(2억8000만 달러, 68.6%) 등 주요 품목

이 강세를 이끌었다.

대(對)미국 수출액은 18억2000만 달러로 6.7% 늘어나면서 1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도체(5억7000만 달러, 2.8%), 이차전지(1억7000만

달러, 195.2%) 등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였다.

유럽연합(EU)으로는 14.0% 증가한 9억3000만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반도체(1억7000만 달러, 7.3%), 휴대폰(1억2000만 달러, 205.7%), 컴퓨터·주변기기(1억3000만 달러, 13.2%) 등 주요 품목에서 고른 성적을 냈다.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0.8% 줄어든 23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9억3000만 달러, -11.0%), 휴대폰(2억3000만 달러, -15.1%) 등이 부진했다.

일본으로의 수출도 3억2000만 달러로 4.3% 감소했다. 디스플레이(1000만 달러, -49.4%), 컴퓨터·주변기기(4000만 달러, -44.3%), 이차전지(3000만 달러, -16.6%) 등 대부분 품목에서 약세를 보였다.

김민경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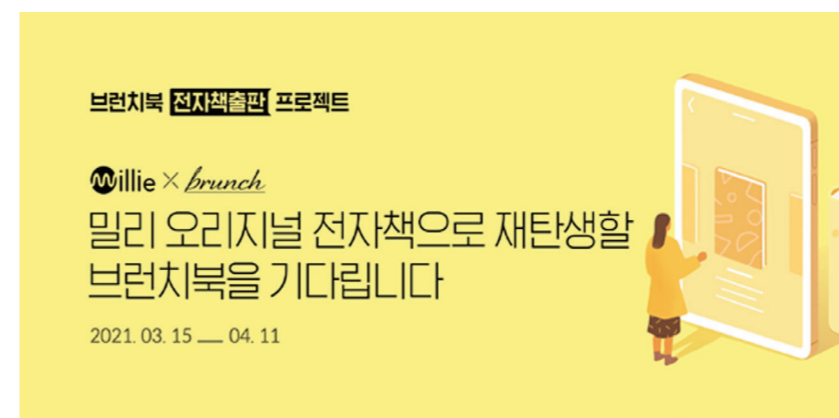
'초등교육 콘텐츠 및 기술 공모전 참여하세요'

KT가 아이스크림에듀, 인천·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에듀테크 기반의 스마트 홀러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초등교육 콘텐츠 및 기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KT 직원들이 공모전 개최를 알리고 있는 모습.

KT가 아이스크림에듀, 인천·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에듀테크 기반의 스마트 홀러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초등교육 콘텐츠 및 기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KT 직원들이 공모전 개최를 알리고 있는 모습.

카카오 브런치, 전자책 출판 프로젝트...내달 11일까지 접수

밀리의서재와 20명 선정...총 상금 2000만원



카카오의 콘텐츠 퍼블리싱 플랫폼 브런치(Brunch)가 15일부터 4월 11일까지 국내 최대 독서 플랫폼 밀리의서재와 함께 '브런치북 전자책 출판 프로젝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작가가 직접 기획하고 완성한 작품 '브런치북' 원작 중에서 원석을 발굴해 밀리의서재 오리지널 콘텐츠인 '밀리 오리지널' 전자책으로 출판하는 공모전이다.

브런치북을 통해 만들어지는 저작물의 형태를 다각화하고 작가들에게 창작 활동의 새로운 무대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는 자유이며 브런치 작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 방법은 브런치 PC버전에서 브런치북을 발간한 뒤 '브런치북 전자책 출판 프로젝트 응모하기' 화면에서 응모할 브런치북을 선택하면 된다.

소설가, 작가, 평론가, 기자로 구성된 4인의 심사위원단 심사를 거쳐 수상자 20명을 선정한다.

수상자 전원에게 각각 상금 100만원과 '밀리 오리지널' 전자책 출간 기회를 제공한다. 출간된 전자책은 올해 하반기 내 밀리의서재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브런치는 매년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를 통해 출판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브런치북 원작을 종이책으로 출판하며 출간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왔다. 현재 4만2000명의 작가가 브런치에서 활동 중이며, 브런치 작가의 출간 도서는 3만7000권에 달한다.

브런치북은 카카오의 콘텐츠 퍼블리싱 플랫폼 브런치에서 작가가 직접 책을 기획하고 완성한 오리지널 초판을 의미한다.

브런치는 여러 편의 글을 한 권의 책으로 엮는 패키징 툴을 제공 중이다. 브런치북 패키징 툴을 이용해 ▲표지 제작 ▲작품 소개 등록 ▲챕터별 목차 구성 ▲완독율 분석 결과를 보여 주는 인사이트 리포트 기능 제공 등 편집 기능을 지원하고, 독자가 전체 글을 읽기까지 소요되는 예상 시간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 브런치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브런치북의 가능성을 전자책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 오디오북, VOD 등 브런치북을 기반으로 다양한 저작물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연내에 지속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자식도 이제는 로봇이'...밥 나르는 '드리고' 나온다

유진로봇-명세CMK, 18일 자율주행 배선카 첫 공개

자율주행 솔루션 전문기업 유진로봇과 명세CMK는 공동개발 중인 자율주행 배선카 '드리고'를 오는 18일 제36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에서 첫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양사가 이번에 공개하는 '드리고'는 의료시설 주방, 병동내 복도, 세척실 등을 자율주행하는 전동 배선카다. 최대 600kg 중량까지 실을 수 있다. 온도제어 기능을 장착해 이동 중 음식의

신선도를 유지한다. 명세CMK의 환자식 온배선카에 유진로봇의 자율주행 솔루션을 장착했다.

유진로봇측은 이 배선카가 국내외 대형 의료시설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자율주행 솔루션을 적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명세CMK 관계자는 "환자식은 병원에서 아침·점심·저녁으로 가장 물동량이 많고, 환자 만족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신선도와 이동 효율성을 동시에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드리고는 병원물류혁신을 이끄는 효율적 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KT, 신입·경력 300명 채용...“디지털플랫폼기업으로 도약”

전년 대비 20% 확대...AI 등 IT인력 채용 확대

서류 전형에 AI 기술 적용·비대면 화상면접 시행

KT가 지난해 대비 20% 확대한 300명을 신규로 채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입사원은 채용전환형 인턴십을 통해 인성과 직무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채용한다. 채용분야는 ▲소프트웨어개발 ▲IT 설계 ▲IT 보안 ▲ICT 인프라기술 ▲유통채널관리 ▲Biz 영업 등 6개 직무다.모집기간은 3월 15일부터 29일까지다.

경력직과 석박사는 R&D(연구개발)

및 신사업 분야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 채용한다.

지난해 텔코(Telco)에서 디지코(Digico)로 전환을 선언한 KT는 채용에서도 ABC 분야(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력 확보에 집중해 신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운영 분야 등 IT 인력을 배치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서 검

토과정에 AI 기술을 적용해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화상면접을 시행하는 등 지원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KT가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채용전환형 인턴십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차산업 관련 실무교육과 채용직무별 현장 인턴십으로 구성된 2개월 과정의 인재육성 및 채용 프로그램이다. 인턴십 기간 중 수행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임원면접 결과를 종합해 KT에 적합한 인성과 직무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신입사원으로 입사가 확정된다. 오유나기자

지난해 평균 토익점수 688점...10년간 평균 50점 올라

전년 대비 2점 올라

최근 10년간 국내 토익 응시자들의 평균 점수가 전체적으로 상승했다. 2011년 633점에서 2014년 652점, 2018년 680점을 거쳐 2020년에는 688점으로 올랐다.

시원스쿨은 최근 한국TOEIC위원회에서 발표한 '2020년 토익 정기시험 성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토익 정기시험 응시자의 평균 성적은 듣기(LC) 380점, 읽기(RC) 308점으로 총점 688점(990점 만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점이 올랐다.

연령대별 평균 성적은 26~30세 응시자가 708점으로 가장 높았고, 31~35세가 705점, 21~25세가 684점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응시 인원은 21~25세가

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26~30세 33%, 31~35세 9%, 그리고 20세 이하와 36~40세가 각각 4% 순이었다.

응시 목적별 비중은 '취업'이 48%, '졸업 및 인증'이 28%, '학습 방향 설정'이 20%, '승진'이 7%로, 작년에 이어 취업을 목표로 하는 응시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승호 시원스쿨랩 이사는 "최근 얼어붙은 취업 시장 속에서 더 높은 토익 점수를 얻기 위해 여러 차례 시험



을 보며 노력하는 응시생들이 많은 만큼 토익 점수의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고기 없이도 든든한 김밥, 버거 2종

150만 채식시장 잡기...세븐일레븐, 비건간편식 출시

세븐일레븐은 소비 영향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채식 시장을 겨냥한 웰빙 간편식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채식연합에 따르면 현재 국내 채식 인구는 150만명에 달한다. 2008년부터 무려 10배 증가한 수치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착한소비자가 가치소비의 한 트렌드로 확산되

고 있다. 이에 세븐일레븐은 식품영양전문가 한영실 교수 맞춤형 연구소와 협업해 '고기 없는 든든한 포만감'을 콘셉트로 한 간편식을 내놨다.

플랜트두부김밥(2300원)은 부드러운 두부 튀김에 비건 마요네즈와 데리야기 소스를 섞은 특제 소스를 활용했다. 여기에 파프리카와 청고추, 당근, 우영으로 토핑해 건강하



고 다채로운 식감까지 살렸다. '핫칠리차플랜트버거'는 식물성 패티를 사용해 만든 채식 햄버거다. 칠리소스와 스리라차소스를 곁들여 버무린 칠리콘가르네와 할라피뇨로 매콤한 맛을 살렸다. 여기에 토마토와 로메인을 곁들여 신선한 야채의 식감을 더했다.